

식량안보와 전통주



정대영
우리술과 천연식초연구회장



쌀시장의 완전 개방이 눈앞에 왔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 시장을 일부 개방하여 1994년부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매년 2만 톤 정도씩 늘려가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40만 톤 즉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르는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예조치도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쌀 수입이 늘어난 데다 국내의 쌀 소비는 계속 줄어 쌀을 생산하는 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매년 1-2만ha 정도의 논이 사라진

다고 한다. 논이 밭이나 창고, 주택, 공장 등으로 한번 바뀌면 논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논이 줄어들면 쌀이 부족해도 쌀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

세계는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2000년대에 들어 식량가격이 크게 오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식량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사료용 포함 시 23%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는 산악국가인 스위스, 사막지대에 위치한 이스라엘 보다 낮은 수준이다.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기 어려운 심각한 식량위기가 오면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미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즉 국민의 생존권 수호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비축의 확대와 해외의 식량 기지 확보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 우리 쌀의 소비를 늘려 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그간 쌀 가공 식품에 대한 지원,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별 효과가 없어 지금까지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대 125kg 내외에서 2013년 67.2kg으로 줄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가 우리 쌀로 만든 우리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좋은 청주는 쌀 1kg에서 300-400ml 정도 나온다. 그리고 맛도 좋다. 수입 와인이나 일본 사케 대신 이런 청주를 한 병(750ml) 마시면 쌀 2kg 즉, 한 사람이 열흘 이상 먹을 쌀을 소비하는 것이 된다.

쌀이 부족하던 조선시대나 1960-70년대에는 쌀로 만든 술을 마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쌀로 만든 술을 마시는 것은 쌀농사를 살리고 미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일이 되었다. 평상시 우리 쌀로 술을 만들어 마시다가 심각한 식량위기가 오면 밥으로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주와 막걸리에는 우리 농산물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소주는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타피오카가 주로 사용되고, 막걸리도 수입산 쌀이나 밀가루 등으로 만든다. 지금의 싸구려 소주나 막걸리가 아닌 조금 비싸

더라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술을 마셔야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충남에는 한산 소곡주, 면천 두견주 등 민속주와 함께 오랜 전통을 가진 양조장이 많이 있고 훌륭한 가양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들도 많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지원으로 <충남전통주아카데미>가 개설되어 전통주를 제대로 빚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통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 전통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여기에도 충남은 지리적으로 남한 중심부에 위치해 명품 양조장들이 고급술을 소량 생산하여 전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유리한 지역이다. 또한 전국 소규모 양조장들이 충남지역에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등을 구성해 공동판매,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편하다.

이와 같은 충남도의 지원과 전문가 노력, 지리적 이점 등이 잘 융합되면 충남은 전통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충남에서 만들어진 전통주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 조금씩 수입 와인과 일본 사케를 대체해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으나마 미래의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길도 된다.